

2023

새해 이렇게

이병노 담양군수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하겠다”



부자 농민 육성·어르신 향촌복지·청년 일자리 등 행정력 집중 교통망 확충·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정주여건 개선 총력

“2023년 담양군은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새해 인터뷰에서 “2023년은 담양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이라”며 “새로운 담양을 모두가 체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부자농민 육성으로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담양군 제1의 산업은 농업으로 전체인구의 50% 이상이 실질적으로 농업과 관련돼있다. 이 군수는 농업예산을 전년 대비 4.4%로 상향 편성하고 쌀값 하락 극복을 위한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분질미 시범 재배단지 조성, 유채,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단지를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담양 명품딸기의 북미시장 본격 진출을 위

해 죽향과 메리핀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공공형 우량묘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최첨단 스마트 팜을 적용한 친환경 축산단지와 중소규모의 동물복지형 축산단지를 조성해 축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농업사관학교 운영과 체계화된 농업기술 전문교육으로 청년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지소를 신규 조성한다.

그간 줄곧 추진돼왔던 ‘담양형 향촌복지’를 통한 효도행정을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담양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여생을 고향에서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와 요양복지 제공으로 향촌복지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의 기능을 보강해 고향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주치의 담당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건소 이전도 추진한다.

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기능 강화와 중년들

의 소통 공간 ‘중년 쉼터’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장학금 신설,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아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청년이 돌아오는 담양, 젊음이 넘치는 담양 만들기도 빼놓을 수 없다.

김 군수는 “지역의 성장동력이자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역동적인 담양을 만들며, 타당성 검토 중인 제2일반산업단지에 정부 주도 핵심 지원 사업이 반영되도록 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담양특화 창업육성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과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읍면 전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 교통망 확충과 도시가스 공급 등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송정역에서부터 담양읍까지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을 확대해 교통 여건을 강화하고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도심 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마을 소유의 공공시설 및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경제적 자립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저지대 수해 대비 시설 정비와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담수면적 확대와 대체 취수원 준비에도 적극 나선다.

또 ‘남도문화 관광도시 담양’을 열어가기 위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 이를 원도심과 연결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33년까지 10개년에 걸쳐 4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진지하게 경청하기 위한 ‘현장행정’도 강화한다. 군민과의 대화, 소규모 민생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진행하고, 군민신문고 및 군민제안 제도 활성화, 군정자문단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행정, 묵묵 없는 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군이 만들어 갈 새로운 변화에 군민과 출향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기관과 손잡는다

인터넷진흥원·나주경찰·소방서와 치매 더+ 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

나주시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증가하는 치매환자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은다.

나주시는 지난 10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나주시-한국인터넷진흥원-나주경찰서-소방서간 ‘치매 더+ 안심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시와 3곳 기관은 최근 실종 치매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치매 고위험군 체계적 관리, 실종 시 초동 대응,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한 수색·수사 등에 초점을 둔 협업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4곳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매월 1회 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현황 공유 및 핫라인 구축, 배회·실종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한 솔루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고위험군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통해 실종자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다.

또 자율방범대(765명), 의용소방대(660명), 생활지원사(143명) 등 각 읍·면·동 안전 분야 사회단체 민간 인력과 24시간 CCTV관제센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경찰·소방의 신속한 대응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윤병태(왼쪽 두번째) 나주시장 등이 ‘치매 더+ 안심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 가정 돌봄의 한계로 인해 길을 잃고 배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소방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번 협약 체결, 협업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약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기술을 활용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

게 돼 기쁘다”라며 “기관 전문성을 살려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소방서는 정보 공유에 따른 수색·수사, 치매가구 사고 예방을 위한 방문 협업, 응급 치매환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한다.

박상훈 경찰서장은 “이번 협약 명칭처럼 더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실종 노인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장흥 군의원들 주민 현안 힘겨루기 논란

연고지 마을 예산 배정에 ‘사할’ 2~3건 배정받은 마을 있는 반면 1건도 못 받은 곳 130곳 달해

주민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일부 지방의원들의 힘겨루기로 불공평하게 배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흥군 등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관내 150여마을에 총 167건에 45억원에 달하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정했다. 이는 총 281개 마을에서 건의한 300여건의 절반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된 45억원의 전체 예산 5140억원의 8%에 불과 하지만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개선 등 마을현안과제라는 점에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의원들이 자기 연고지마을 배정에 사할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주민숙원사업은 선정과정 절차(마을이장, 개발위원장의 건의를 통해 해당 읍·면장이 선별해 군수에게 보고하면 인구수와 경지면적, 읍·면 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이 책정)가 무시된 채 배정되면서 특정 마을에는 3건 이상 배정되는가 하면 일부 마을엔 단 한 건도 못 받은 등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실제로 올해 책정된 167건 가운데 장흥읍 A마을, 안양면 B마을과 대덕읍 C마을은 3건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2건 이상을 받은 마을이 5곳이지만, 단 한 건도 받지 못한 곳이 1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대중 장흥군 건설도시과장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 배정기준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주민대표로 뽑힌 선출직 의원들이 특별건의한 현안사업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다소 중복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1회용품 ZERO 청사 만들기 추진

화순군이 강화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에 맞춰 ‘화순군 1회용품 ZERO 청사 만들기’를 추진한다.

화순군은 최근 ‘1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 챌린지’ 행사를 실시했다.

군은 각종 회의 시 개인 텀블러를 휴대하고, 1회용 컵 유료 청사 내 반입 금지 및 사무실 방문객 대시 다화용 컵 사용 실천을 위해 34개 실·과·소 및 읍·면·동 찻린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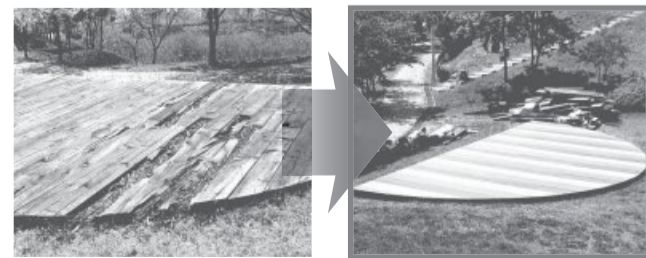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